

문법 개념 구조도

[1] 국어와 얹

1. 언어의 본질

1-1. 언어의 특성	① 언어의 기호성 ② 언어의 자의성 ③ 언어의 규칙성 ④ 언어의 체계성 ⑤ 언어의 창조성 ⑥ 언어의 사회성 ⑦ 언어의 역사성	18
-------------	--	----

2. 국어의 구조

2-1. 음운 (음운론)	2-1-1. 음소	① 자음	㉠ 성대의 울림 여부 ㉡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22
		② 모음	㉠ 단모음 ㉡ 이중모음	25
	2-1-2. 운소	장단, 연결, 억양		27
	2-1-3. 음운의 변동	① 음운의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35
			㉡ 비음화	38
			㉢ 유음화	40
			㉣ 구개음화	42
			㉤ 경음화 (된소리되기)	43
			㉥ 전설 모음화	45
			㉦ 두음 법칙	46
		㉧ 사잇소리 현상	47	
	② 음운의 축약	㉠ 자음 축약 (거센소리되기)	49	
		㉡ 모음 축약	50	
	③ 음운의 탈락	㉠ 자음 탈락	① 자음군 단순화 ② 'ㄹ' 탈락 ③ 'ㅎ' 탈락 ④ 두음법칙	51
㉡ 모음 탈락 ('으' 탈락)		54		
④ 음운의 첨가	㉠ 사잇소리 현상	'ㄴ' 첨가	55	
	㉡ 반모음 첨가	56		
2-1-4. 기타	① 모음조화 ② 이화		57	
2-2. 단어 (형태론)	2-2-1. 형태소	① 형태소의 종류	㉠ 실질 형태소 ㉡ 형식 형태소 ㉢ 자립 형태소 ㉣ 의존 형태소	76
		② 이형태의 종류	㉠ 음운론적 이형태 ㉡ 형태론적 이형태	78
	2-2-2. 단어	① 단어의 형성	㉠ 어간	82
			㉡ 어미	82
			㉢ 어근	82
			㉣ 접사	① 접두사 ㉠ 파생 접두사 ② 접미사 ㉠ 파생 접미사 ㉡ 굴절 접미사
	② 단어 형성 방식	㉠ 단일어	84	
		㉡ 복합어	① 합성어 ㉠ 통사적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85
			② 파생어 ㉠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	94

	2-2-3, 품사	① 불변어	㉠ 체언	❶ 명사		105		
				❷ 대명사		106		
				❸ 수사		107		
			㉡ 수식언	❶ 관형사		㉠ 성상 관형사 ㉡ 지시 관형사 ㉢ 수 관형사	114	
				❷ 부사		㉠ 성분 부사 ㉡ 문장 부사	115	
				❶ 조사		㉠ 격조사 ㉡ 접속 조사 ㉢ 보조사	116	
			㉢ 관계언	❶ 조사		㉠ 격조사 ㉡ 접속 조사 ㉢ 보조사	116	
			㉣ 독립언	❶ 감탄사		122		
			② 가변어	㉠ 용언	❶ 동사		124	
					❷ 형용사		124	
		㉡-1. 용언의 활용		❶ 선어말 어미		130		
				❷ 어말 어미	㉠ 종결 어미		132	
					㉡ 비종결 어미	㉢-1. 연결어미	㉠ 대등적 연결 어미 ㉡ 종속적 연결 어미 ㉢ 보조적 연결 어미	132
						㉢-2. 전성어미	㉠ 명사형 전성 어미 ㉡ 관형사형 전성 어미 ㉢ 부사형 전성 어미	132
					2-3. 문장 (통사론)	2-3-1. 문장의 성분	① 주성분	㉠ 주어 ㉡ 목적어 ㉢ 보어 ㉣ 서술어
		② 부속성분	㉠ 관형어 ㉡ 부사어		168			
		③ 독립성분	㉠ 독립어		168			
			2-3-2. 문장의 구조	① 흘문장			172	
				② 겹문장	㉠ 안은 문장	❶ 명사절을 안은 문장 ❷ 서술절을 안은 문장 ❸ 관형절을 가진 안은 문장	❹ 부사절을 가진 안은 문장 ❺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	173
					㉡ 이어진 문장	❶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❷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175
2-3-3. 국어 문법 범주	① 종결 표현			㉠ 평서문		188		
② 높임 표현		㉡ 명령문	❶ 직접 명령문 ❷ 간접 명령문		188			
		㉢ 청유문			189			
		㉣ 의문문	❶ 판정 의문문 ❷ 설명 의문문 ❸ 수사 의문문		189			
		㉤ 감탄문			189			
	③ 시간 표현	㉠ 주체 높임법	❶ 직접 높임 ❷ 간접 높임		193			
		㉡ 객체 높임법			194			
	④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 상대 높임법	❶ 격식체	㉠ (아주높임) 하십시오체 ㉡ (예사높임) 하오체 ㉢ (예사낮춤) 하게체 ㉣ (아주낮춤) 해라체	194			
		❷ 비격식체	㉠ (높임) 해요체 ㉡ (낮춤) 해체					
⑤ 부정 표현	㉠ 시제	❶ 과거 시제 ❷ 현재 시제 ❸ 미래 시제		204				
	㉡ 상	❶ 진행상 ❷ 완료상		206				
	④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 피동 표현	❶ 파생적 피동문 ❷ 통사적 피동문		210			
		㉡ 사동 표현	❶ 파생적 사동문 ❷ 통사적 사동문		211			
	⑤ 부정 표현	㉠ '안' 부정문	❶ 긴 부정문 ❷ 짧은 부정문		220			
		㉡ '못' 부정문	❶ 긴 부정문 ❷ 짧은 부정문					

2-4. 담화 (화용론)	2-4-1. 담화의 개념	① 발화	㉠ 직접 발화 ㉡ 간접 발화	226
		② 담화의 구성요소	㉠ 화자 / 청자 ㉡ 발화(내용) ㉢ 장면(맥락)	228
	2-4-2. 담화의 종류 및 기능	① 정보 제공 담화 ② 호소 담화 ③ 약속 담화 ④ 사고 담화 ⑤ 선언 담화		229
	2-4-3. 담화의 표현	① 지시 표현 ② 대응 표현 ③ 접속 표현		230
2-5. 의미 (의미론)	2-5-1. 의미의 종류	① 개념적 의미	㉠ 다의어 ㉡ 동음이의어	240
		② 내포적 의미 ③ 사회적 의미 ④ 정서적 의미 ⑤ 반사적 의미 ⑥ 언어적 의미 ⑦ 주제적 의미		245
	2-5-2. 의미의 성분 분석			247
	2-5-3. 단어의 관계	① 유의 관계 ② 반의 관계 ③ 상하 관계 ④ 부분-전체 관계		249
	2-5-4. 문장의 관계	① 유의 관계 ② 반의 관계 ③ 중의적 문장과 모호한 문장		252

[2] 국어와 규범

1. 정확한 발음	1-1. 표준 발음과 표준어	① 표준 발음법 ② 표준어	276
2. 올바른 단어 사용	2-1. 한글 맞춤법		292
	2-2.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① 외래어 표기법 ② 로마자 표기법	297
3. 정확한 문장 표현	3-1. 정확하지 않은 문장의 구분		323
	3-2. 자연스러운 문장의 요건	① 문법성 ② 적절성	324
4. 효과적인 담화 구성	4-1. 표준 화법과 언어 예절		343

[3] 국어와 얼

1. 국어의 변천	1-1. 국어가 걸어온 길	① 국어의 계통	㉠ 국어의 형성 ㉡ 국어사의 시대구분	346	
		① 음운의 변천	㉠ 자음의 변천 ㉡ 모음의 변천 ㉢ 성조	348	
	1-2. 국어의 변천	② 표기·문법의 변천	㉠ 고대 국어 ㉡ 중세 국어 ㉢ 근대 국어	350	
		③ 어휘의 변천		357	
	1-3. 한글의 창제와 문자 생활	① 한글의 창제	㉠ 훈민정음 제자원리	① 초성 제자원리 ② 중성 제자원리 ③ 종성 제자원리	379
	1-4. 선인들의 국어 생활			383	

부교재 : 비문학 언어 지문 모음

386

교재 후기

401

빠른 정답

별책

01

해설

별책

17

[1] 국어와 읽

1. 언어의 본질

1-1. 언어의 특성

1-1. 언어의 특성

① 언어의 기호성

② 언어의 자의성

③ 언어의 규칙성

④ 언어의 체계성

⑤ 언어의 창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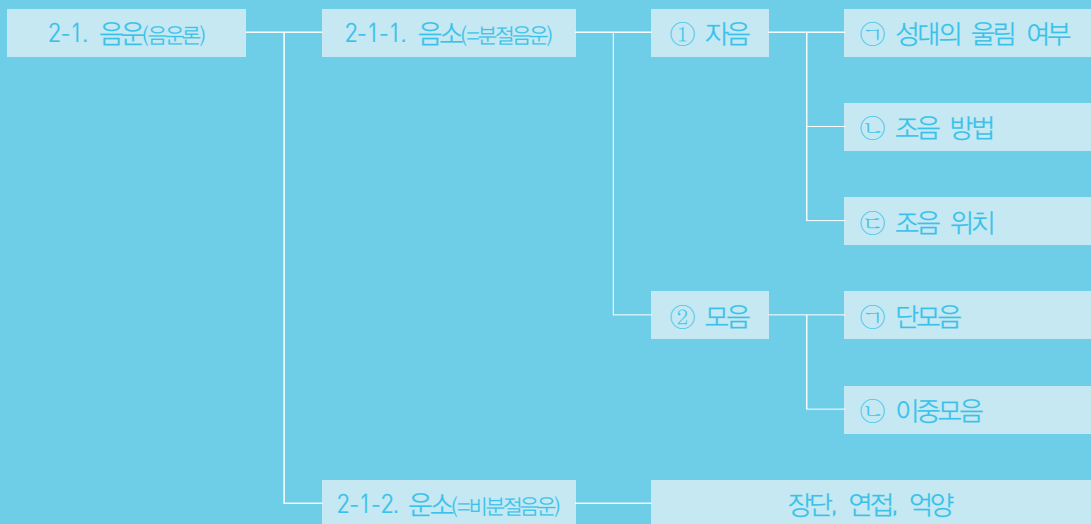
⑥ 언어의 사회성

⑦ 언어의 역사성

2. 국어의 구조

2-1. 음운

2-1-1. 음소 & 2-2-2. 운소





<해당 개념 기술 유형>

- [2017학년도 수능 12번]
음운의 변동
- [2017학년도 6월 13번]
음운의 변동
- [2016학년도 수능 A형 11번]
음운의 변동
- [2016학년도 9월 A형 11번]
음운의 변동
- [2016학년도 6월 A형 11번]
음운의 변동
- [2015학년도 수능 A형 11번]
음운의 변동
- [2015학년도 9월 A형 11번]
자음의 조음방식
- [2015학년도 6월 A형 11번]
음절의 특성
- [2014학년도 수능 A형 11번]
음운의 변동
- [2014학년도 9월 A형 11번]
음운의 변동
- [2014학년도 6월 A형 11번]
음운의 변동
- [2014학년도 예비수능 A형 11번]
음운의 개념
- [2012학년도 수능 40-42번 비문학 (언어)]
한글의 표음성
- [2011학년도 9월 12번]
'경반침'의 표준 발음 분석
- [2010학년도 수능 30-31번 비문학 (언어)]
음운의 변별적 자질
- [2008학년도 수능 31-33번 비문학 (언어)]
개구도(開口度)를 중심으로 한 음절의 특징
- [2005학년도 수능 44-47번 비문학 (언어)]
문자 발달사에 따른 문자의 장단점과 한글의 문자적 특징 - 그림 문자, 표의 문자, 표음 문자, 음운 문자, 음절 문자, 자질 문자

열공 Tip! - 음성과 음운의 비교

음성은 발음 기관을 통해 발음되는 모든 소리를 통칭하는 광범위한 개념이야. 즉, 순간적이고 무의미한 단순한 의성어들도 모두 음성에 포함되는 것에 반해 음운은 머릿속에 또렷이 각인되어 의미 차이를 나타내는 소리를 말하지.

2-1. 음운	2-1-1. 음소	① 자음	② 모음
------------	--------------	------	------

2. 국어의 구조 중요도 | ★★★★★☆

2-1. 음운

: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의미의 차이를 내는 최소의 문법 단위)

- ex) 말 || 발 → ‘ㄹ’과 ‘ㅂ’의 차이, 즉 ‘자음’의 차이로 의미가 구분되기 때문에 자음은 음운에 해당됩니다.
- 말 || 물 → ‘ㅌ’와 ‘ㅍ’의 차이, 즉 ‘모음’의 차이로 의미가 구분되기 때문에 모음은 음운에 해당됩니다.
- 말 || 말: → 소리의 길고 짧음, 즉 ‘소리의 장단’으로 의미가 구분되기 때문에 소리의 장단도 음운에 해당됩니다.

음운	
음소 (=분절음운)	운소 (=비분절음운)
특정 언어에서 하나의 소리로 인식되며 의미 분화를 일으키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 예) 자음과 모음	언어음의 고저, 강세, 음장이나 억양, 말이 끊어지는 것 등으로 말의 뜻이 분화될 때 이들을 운소리 정의.



2-1. 음운	2-1-1. 음소	① 자음	② 모음
------------	--------------	------	------

2-1-1. 음소(=분절음운) 중요도 | ★★★★★☆

① 자음(19개)

: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조음 기관을 통과하는 과정 중 기류의 흐름에 방해가 일어나면서 만들어지는 소리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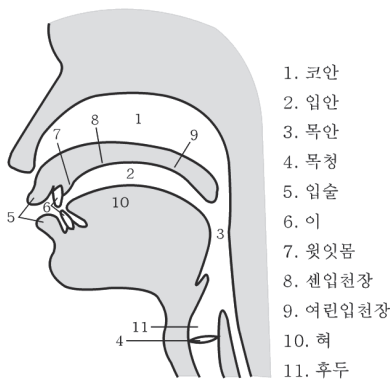
표준어의 자음은 다음 19개로 한다.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ㅂ ㅃ ㅅ ㅆ ㅇ ㅈ ㅊ ㅅ ㅈ ㅊ ㅅ ㅈ ㅊ

-표준 발음법 제2장 자음과 모음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입술소리	혀끝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ㅌ		ㅋ	
		거센소리	ㅍ	ㅈ		ㆁ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파찰음	예사소리		ㅈ		
울림 소리	비음	예사소리	ㅁ	ㄴ		ㅇ	
		된소리		ㄹ			
		유음		ㄹ			

[자음 체계]



[조음 기관의 모양]

1. 코안
2. 입안
3. 목안
4. 목청
5. 입술
6. 이
7. 윗잇몸
8. 센입천장
9. 여린입천장
10. 혀
11. 후두

열공 Tip! - 자음체계

자음 체계표는 외우지 않아도 좋지만, 적어도 음운 현상들을 공부하는 동안은 참고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 개념을 이해하면 기억력이 훨씬 오래가니까 ^^

'안울림소리'와 '울림소리'를 기준으로 표를 나누어보고, 시계방향으로 돌려가며 '바닷가 횃집' (안울림 소리 부분), '마니와라' (울림 소리)의 순으로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어. (크게 말하면 좀 참피할 순 있음^^;)

'바닷가'의 '닷'이라는 글자 안에 'ㄷ'과 'ㅅ'이 같이 있으니 세로로 같은 위치(같은 혀끝소리)인 것을 확인하면 되고, '횃집'의 '횃' 역시 글자 안에 'ㅎ'과 'ㅅ'이 있으니 가로로 같은 위치(같은 마찰음)인 것을 확인하면 돼. 진짜 쉽지? ^^

꿀치 아픈 표를 이렇게 깔끔하게 외우고 나면, 앞으로 음운 변동 현상들의 체계가 쉽게 잡힐 거야. 선생님만 믿어. ^^ 선생님도 널 믿으니깐.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11.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 보 기 > —

학 생 : ‘식물’이 [싱물]로 발음되는데,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조음 위치나 방식 중 무엇이 바뀐 것인가요?

선생님 : 아래의 자음 분류표를 보면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조음위치 \ 조음방식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파열음	ㅂ	ㄷ	ㄱ
비음	ㅁ	ㄴ	ㅇ

이 표는 국어 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에 따라 분류한 자음 체계의 일부입니다. ‘식’의 ‘ㄱ’이 ‘물’의 ‘ㅁ’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지요. 이와 비슷한 예들로는 ‘입는[임는]’, ‘뜯는[퉁는]’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학 생 : 세 경우 모두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이/가 변했네요.

- ① 앞 자음의 조음 방식 ② 뒤 자음의 조음 방식
- ③ 두 자음의 조음 방식 ④ 앞 자음의 조음 위치
- ⑤ 뒤 자음의 조음 위치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1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절’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자 료 > —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를 음절이라고 한다.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ㄱ.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아, 야, 와, 의)
- ㄴ. ‘초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끼, 노, 며, 소)
- ㄷ. ‘중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알, 억, 영, 완)
- ㄹ. ‘초성+중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각, 녹, 딸, 형)

- ① 초성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온다.
- ②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모음이다.
- ③ 종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자음이다.
- ④ 초성 또는 중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 ⑤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한다.



‘2019 문법의 끝’의 특별한 후기

김 봉 소 (이갑 국어 연구소 고문)

잘 알다시피 문법이란 언어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 언어학자들이 고안해 낸 개념들의 체계이다. 즐겁로 된 책보다는 도식, 도표, 필수적인 예시 등으로 잘 요약된 책으로 익히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이유도 문법 공부의 결국은 수많은 개념들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일 게다.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 문법의 개념 체계를 수많은 도식, 도표, 예시로 전달하고 있는 「문법의 끝」은 효율적인 책이다.

한편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에서 주어진 언어 현상들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거나, 심지어 개념들 간에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불신마저 생기는 순간들이 있다.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을 게다. 이는 다 효율만을 위해 교재가 지나치게 압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법의 끝」은 효율만을 위해 내용의 충분함을 희생시키지 않았다.

문법 교재는 시장에서 좀 팔리기 때문에 일부 개념들만 정리된 얇은 책들은 많다. 하지만 교과서 문법의 전 개념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책은 드물다. 수험생들이 책장에 하나쯤 꽂아 두고 문법 공부를 할 때마다 꺼내서 참고한다면 참 든든한 책일 것 같다.

2018년 5월 7일 대치동에서.

‘2018 수능 1등급 검토진’의 교재 후기

이 은 경 | 연세대학교 수학과 2018학번

현주쌤 안녕하세요! 저는 금요일 6시 30분 수업을 거의 앞자리에서 들었던 학생이에요! 정말 제 기준에서는 열심히 들었는데 아마 제가 낮을 가리고 질문을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TTT 절 모르실 수도 있을 거 같아요TTT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후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쓰게 된 이유는 가채점을 안 적어와서 혹시 실채점이 잘못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기다렸다가 쓰게 되었어요!!

우선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 제 글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을 수 있게 제 상태를 써보자면 작년에는 현강이라는 것을 1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항상 문학+화작은 다 맞고 비문학+문법에서 다 비가 내리는 그런 전형적인 문과문과 한 사람이었습니다TTT평가원은 항상 3등급 초-중반을 왔다갔다거렸구요.

제가 현주쌤 강의를 듣기 시작한 것은 6평 바로 끝나고인데요! 그때 당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DNS 스푸핑에서 멘탈이 탈탈 털린 후 장지문에 아예 손도 못 대서.....;; 고심끝에 오르비를 돌다가 현주쌤의 글과 후기를 통해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처음 듣고 진심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우선 선생님 강의의 장점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비문학에서의 정보의 위계질서를 알려주신다는 점이에요! 제 문제점은 비문학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한지를 몰라서 무작정 모든 것을 머리에 다 외우고 보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게 3학년 교육청까지는 먹히다가 이제 정보가 많은 지문에서는 정작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경향을 가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현주쌤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면 ~하다 혹은 정의, 결과, 비례-반비례 등에 표시하고, 생략 가능한 내용 예들들어, 구체적인 계산식 등등에는 다른 표시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진심 신세계였습니다.....정보간의 위계질서가 잡히니까 글을 읽는게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선생님이 매 지문마다 어떤 것에 표시하는지를 알려주셔서 나중 파일 갈 때는 약간 지문 읽을 때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아 근데 진심ㅋㅋㅋ수능장에서 다 생각났어요 오버슈팅 읽을 때 멘붕직전이었었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ㅋㅋㅋ)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ㅎㅎ

그리고 문학에서는 진짜 도움됐던 거는 사실과 시적상황을 분리하는 것과 항상 문학 강의 들어가시기 전에 칠판에다가 작품들을 보면서 꼭 주목해야할 것을 미리 써주시고 수업하시는데 그것도 문학 작품이 헛갈릴 때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계속 적으면서 문제 풀었더니 내용이 애매하거나 헛갈릴 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좋은 점은 시험 때 쓸 수 있는 팁?요령? 같은것을 많이 방출해 주십니다! 저는 그냥 요령없이 막 양만 많이 푸는 스타일이라서 선생님의 이런 문제푸는 방법들을 새겨두고 정말 많이 써먹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차이나는 파일!!!그 리트+교육청+평가원 문학 비문학 만 모여있는 자료를 과제로 내 주시는데 진심 그거 꼭 푸셔야 돼요TTT마지막에 기출정리+실전연습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됐습니다! 운 좋으면 거기에 있는 작품이 수능에 나올지도 몰라요! 예들들어 제가 차이나는 파일을 풀면서 진짜 와 이 시는 꽤 어려운데? 하는 교육청 문제가 있었는데 나왔어요;;;;;; 근데 사실 뭐가 나올지 맞추는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 선생님 현강에서 들었던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숙제라 할 수 있어요! 제가 간쓸개는 다 못풀어도 이거는 항상 꼭 풀었습니다!! 진심 리트부터 교육청까지 다 있는데 평가원 문제유형 익숙해지기+비문학 주제연습(간단한 배경지식)+실력향상에 도움 진짜 많이 됐어요TTT

+마지막 한가지 더! 문법의 끝 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진짜 시험에 나올꺼 안 나올꺼 모두 담긴책인데 한번 문법을 전체 돌린 사람이 더 깊게 파고들 때 그 책으로 공부하면 진짜 좋습니다! 저 수능 7일 연기 되었을 때 문법을 그 책으로 부족한 것만 다시 돌렸더니 시험볼 때 집중적으로 봤던 첨가 부분에서 나와서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그리고 한가지 장점을 추가하자면 제가 항상 봤는데 항상 10시 이후에 학생들 질문 받아주시느라 계속 남아계시고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업하시는게 다 느껴졌어요TTT 마지막 수업 때 약간 많이 슬펐어요TTT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문학을 좋아해서 그런지 선생님이 작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혹은 문학 작품 풀어주실 때가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독재하면서 일주일의 낙이 현강 들으러 오는 것일 정도로 재미있었습니다ㅋㅋㅋ



아무튼 현주 쌤 강의는 진심 좋습니다!! 진짜 재수때도 많이 추천했고 지금도 많이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진짜 좋아요^^ 그럼 이만 후기를 끝내겠습니다! 현주 쌤 다시 한번 6개월동안 진짜 진짜 너무 재밌고 유익한 수업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어가 효자과목이 될 줄 상상도 못했어...

이 예 찬 | 전남대학교 의예과 18학번

저는 지방 사립의대에 진학했다가 제 욕심에 다시 한 번 수능을 치르기로 결심한 학생입니다. 재수 때 수능에서 국어 3등급을 받으며 크게 흔들렸던 저는 국어라는 과목에 있어서의 자존감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어린 시절 외국 생활로 인해 국어적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탓인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문법이었습니다. 어떤 선생님도 문법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시간상의 이유로 문법만을 위한 강의를 해주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문법은 배우기가 무척이나 힘든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 친구들로부터 추천받은 책이 바로 이 '문법의 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반수를 해서인지 다소 늦은 6월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된 저는 늦었지만 일단 천천히 문법 개념부터 잡고가자 라는 생각에서 문법의 끝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법의 끝을 공부하면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은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의 설명이 충실하게 되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례를 바로 아랫부분에 비치해서 개념을 익힘과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수능 국어에 있어서, 어찌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예외들에 대해 빠짐없이 정리가 되어있는 것을 보고 이 책이라면 문법을 정말 다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능장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문법 문제가 나오더라도 저는 문법의 끝을 충분히 자세히, 또 여러 번 공부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기출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사실 문법은 한 시험에서 5문제만 나오므로 그 양이 단원별로 파악했을 때는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평가원, 교육청 수록 문제들을 구별해서, 모조리 실어놨기에 제가 익힌 개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책은 제 개인 경험상 문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에게는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문법적 지식을 익혀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또 기본이 어느정도 완성이 되어있는 분에게는 자신의 지식을 견고히 해 나가는 콘크리트의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법은 휘발성이 매우 강하기에 이 책을 한 번이 아닌 최소 10번은 가능하다면 더 많이 반복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feat. 유현주 쌤 감사드려요^^

김 서 연 | 고신대학교 의예과 18학번

저는 18수능으로 처음 1등급을 받아본 학생입니다.

6평 때 화법과, 작문부터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문법 문제에서도 실수를 하고, 뒤이은 독서, 문학에서도 시간에 쫓겨 끝까지 풀지 못했습니다. 국어가 안정적인 등급이 나오지 않아 고민하던 중 유현주 선생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독서, 문학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선생님께서 현장 강의 학생들에게 나눠주신 '문법의 끝' 교재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접한 건 9월쯤이어서 개념은 이미 여러 번 강의로 반복한 후였고, 기출 문제도 2번 정도 풀어 봐서 이 책을 답만 맞추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문제의 경우에는 정답외의 선지 예시도 꼼꼼히 외워두었습니다. 교육청 문제들 까지 수록되어 있어서 문제의 양도 충분했고, 해설도 상세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개념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은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조금씩 자주 읽어서 문법 용어에 대한 부담감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유현주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

정 소 이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18학번

유현주 선생님의 현강을 수험생활 내내 들었던 학생입니다. 저는 이 책을 산 어느 누구보다 "문법의 끝"이라는 책에 감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이 책은 저에게 있어 이번 수능 1등급을 가능케 한 책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제발 후배 여러분이 이 책을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2등급도 받아본 적이 없는 3등급, 4등급의 학생이었습니다. 과학과 경제 비문학에서 점수를 많이 놓치는 것이 문제였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문법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보어와 관형어, 부사어같은 가장 기본적인 성분조차 모르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문법을 4개 이상 맞아본 적이 없었고, 비문학을 잘 푼다 해도 3등급을 넘길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유현주 선생님이 문법의 끝을 학기 초에 배부해주셨는데, 그 때 차근차근 전부 볼 걸이라는 후회가 정말 많이 듭니다. 저는 문법을 계속 미루다가 9월 모의고사에서 3개를 틀린 후에야 문법을 시작했습니다.

관형어, 부사어조차 뭘지 모르는 제가 수능 당일 문법을 고민 없이 빠르게 풀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문법의 끝으로 독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책의 앞에 있는 선생님의 비밀(선생님의 귀여운 캐리커처)은 매순간 스스로를 가다듬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북돋아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의 당부의 말을 보고 얼마나 위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 능력을 한정짓지 말아요. 그대들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수험생활, 자존감은 바닥이고 굴러가는 낙엽조차 미워보이던 제게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 그 문장에 핑크색 형광펜으로 마킹까지 해놨습니다 :). 책의 앞 쪽에 나와 있는 문법 개념 구조도를 통해 내가 모르는 것과 어려운 것, 그리고 아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역대 기출문제들을 순서와 색으로 표시해놓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학생들은 차근차근 전부를, 저처럼 시간이 없는 학생들은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들만 골라 푸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설지도 정답과 근거만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선택지의 오답해설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저처럼 문법을 놓은 지 오래돼서 기본적인 것조차 몰라 문법 문제를 찍거나 감으로 푸는 학생들 있을 겁니다.

"문법의 끝"은 여러분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공부하기 안성맞춤입니다. 꼭 "문법의 끝" 책을 통해 수능 당일 문법 전부 맞추시고, 저처럼 1등급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제 수능 1등급의 기적을 만들어주신 유현주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최 정 은 | 조선대학교 치의예과 18학번

저는 '국어 문법'이라는 영역은 '알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법을 공부하며 개념들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최근 평가원에서 문법의 헛갈릴 만한 부분들을 출제하면서 학생들이 정확히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2017수능에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문법영역 5문제 중 3문제나 틀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반수하면서 시간투자를 많이 하면서 문법을 깊게 공부했고, 결국 문법문제를 다 맞으면서 국어영역 1등급(95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문법을 공부하는 데에 유현주 선생님의 수업과 문법의 끝 교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문법개념공부는 다른 인강교재로 했고 문법의 끝은 8월 말 즈음 알게 되어 문법의 끝을 세세하게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파이널 현장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시는 부분 중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 있으면 문법의 끝 교재를 활용해 부분부분 학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었고, 제 인강 교재에 단권화 해 나갔습니다.

문법의 끝은 단원별로 잘 항목화되어 있어 개념들을 찾기가 편했고, 다양한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단권화한 제 개념서는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문법의 끝에 수록된 기출문제들을 풀었는데, 기출문제들이 단원별로 되어있는 점과 색깔별로 문제들이 나뉘어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수능은 빨간색, 평가원모의고사는 파란색, 교육청 모의고사는 초록색으로 나뉘어져 있어 보기가 편했습니다.

처음 풀 때는 쪽 풀면서 단원별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단권화된 개념서의 그 부분을 다시 보고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또, 수능 직전에는 빨간색 수능 기출만 단원별로 풀어보면서 수능스타일을 익혔습니다. 결국 단권화된 개념서를 계속 복습했던 것과 문법의 끝에서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던 것이 문법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문법의 끝을 늦게 접하신 학생들이라도 기출문제들만큼은 꼭 단원별로 풀어보시면서 개념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 남 희 |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8학번

저는 수능 국어에 매우 관심이 많은 대학생입니다ㅎㅎ 개인적으로 수능 국어에서 다른 영역과 문법은 약간의 차별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화작, 문법, 문학, 독서 중에서 내용적인 영역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국어 관련 멘토링을 해줄 때 독서나 문학 푸는 실력에 비해, 시험장만 가면 성적이 안나온다 하는 학생들은 우선 물어보는 부분이 "문법은 확실하게 해냈니?"입니다.

수능장에서 문법은 확실하게 알면 5문제를 5분 안에 풀고 5문제를 다 맞을 수 있지만, 문법의 개념이 조금이라도 미숙한 학생이라면 5문제를 푸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될 뿐더러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문법 문제를 틀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재수 시절 문법을 완벽하게 해놓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문법을 꼼꼼하게 하고 싶어서 문법을 그냥 무작정 외워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유현주쌤 현장을 수강하게 되어서 선생님님이 현강생들에게 나눠주신 문법의 끝을 통해 문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문법의 끝은 일단 책이 굉장히 두꺼워서 학생들이 지레 겁을 먹는 경우도 존재합니다ㅎㅎ.. 그러나 책이 두꺼우면 두꺼운 이유가 다 있는 법이죠, 문법의 끝은 일단 개념설명이 매우 자세하게 되어있습니다. 문법 개념을 혼자 자세하게 하기는 쉽지 않는데, 문법의 끝은 개념설명이 잘되어있어서 혼자 문법 공부를 하는 것에 오히려 넘치면 넘치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개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예시가 많이 적혀있어서 개념을 이해하기 수월했습니다ㅎㅎ 그리고 책을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예시도 암기가 되고 예시가 많이 기억나는게 문제풀 때 은근 꿀이더라고요ㅎㅎ..

또한 수능 국어에서 기출분석의 중요성은 오르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너무나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법의 끝은 수능, 평가원 문법 문제가 거의 다 수록되어있어서 저는 책에서 개념을 정립하고 기출분석을 바로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문법은 배운걸 적용 시켜야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그런데 수능, 평가원 문법 문제만 있다면 문제 수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문법의 끝은 교육청 문제까지 수록되어있어서, 개념을 앞서 잡은 후 평가원 문제들을 통해 기출분석을 하고 교육청 문제들로 양치기까지 할 수 있기에, 수능 문법을 공고하게 하고 싶었던 저는 저 3단계로 공부해서 단권화된 문법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ㅎㅎ

그리고 그 결과 17수능 때 문법 5문제 중에서 3문제 맞추고 시간은 겁나 많이 써서 4등급 맞고 재수한 제가 18수능 문법 5문제 5분컷 하고 수능 국어 1등급 맞고 지금 뱃지달고 있는 대학 합격했습니다ㅎㅎ

윤 현 지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18학번

안녕하세요 저는 9월 추석특강부터 파이널까지 유현주 선생님 수업을 들은 학생입니다.

어쩌다 6월 모의고사에서 89점으로 1등급을 받긴 했지만 시험을 잘봐도 왜 잘 봤는지 잘 몰랐고, 기존에 제가 받던 국어 등급은 항상 3등급이었습니다. 마더텅꺼 기출을 풀고 채점했을 때에도 대부분 3등급이 났었구요.... ㅎㅎ

수능이 얼마 안남았는데 9월 모의고사까지 3등급을 받고나니 사실 모의고사를 시간안 에 재서 푸는 연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혼자 공부할 때는 80분 시간을 딱 재놓고 푸는게 힘들었는데 학원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실시하니 집중력도 높아지고 수능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나눠주시는 학습관련 자료들과 수업의 질이 너무너무 좋았고, 저는 특히 문학 해제강의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연계교재 관련 질문도 카톡으로 한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참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ㅠㅠ

이렇게 파이널까지 유현주 선생님과 함께 달린 덕분에 저는 고3 모의고사시절 받았던 가장 좋은 백분위 96을 뛰어넘어 수능에서 3점짜리 한 문제를 틀려 97점을 받고, 백분위 98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국어에서 1등급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안정적인 1등급까지 이르는 데에 유현주 선생님의 강의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제 공부방법을 탄탄하게 다지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최저를 맞추고 논술로 대학에 당당히 합격한 지금, 국어로 높은 수능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유현주 선생님과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조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정 지 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18학번

쌤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반년 조금 넘게 항상 앞자리에서 현장 들었던 여학생입니다 ㅎㅎ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모의고사 국어 등급 3등급 혹은 4등급이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열심히 해본다고 했는데 국어는 혼자 노력한다고 오르는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쌤 현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니 아침 9시부터 leet 등의 어려운 문제만 풀게 하셔서 적응도 안 되고 졸리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수능에 나오나 싶고... 설상가상으로 김봉소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솔직히 정말 학원가기 싫었어요^^; 아침부터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하고 처참한 점수를 보는게ㅠㅠ 이렇게 3개월을 보냈지만 9평 점수가 오히려 떨어져 좌절했고 그만 다녀야하나 생각했지만 아침마다 일찍 간 게 너무 아까워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유현주쌤 강의의 장점은 글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며 국어 문제를 풀었지만 지문을 절반으로 나누고 읽으며 문제를 풀라고 하셨고 지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고 어떻게든 문제로 나온다고 하시는 수업을 들으며 국어 실력이 많이 느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모의고사를 푼 직후에 푼 방법을 비교해본 덕에 글을 읽는 방식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또한 문학은 글을 읽는 방법이 없다고 느꼈었는데 수업시간에 적어주시는 작가에 대한 특징이나 요약들을 공부하기 싫을 때 머리 식히는 겸 꾸준히 읽다보니 나중에는 문학 흔들렸던 부분들도 많이 정리가 됐어요. 만년 국어 3,4등급이 수능1등급을 받게 되니까 이 글 쓰는 것도 선물같네요 현주쌤 덕분입니다ㅠㅠ 선생님님 종강 날 주신 에코백도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진짜 감사했습니다 꼭 찾아갈게요 !♡

김 서 현

안녕하세요 올해 수능을 치룬 고3입니다!

오늘은 문법의 끝 2018ver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대한 후기를 알려드리려면 우선 그 당시 저의 상황에 대해서도 서술해드려야 할 것 같으니 수능 보기 전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평 낮은 2등급, 9평 낮은 3등급.

이런 성적이었었는데 이 중에서도 문제는 문법이었어요. 6평에서 2문제 9평에서 3문제를 문법만 틀려서 등급을 깎아 먹었으니... 문법 공부가 시급했죠. 당시 문법 공부는 수업시간 선생님이 해주신 내신수업이 전부였는데 뭔가 아무리 수업을 들어도 내 것이 안 되니까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시간 소요가 엄청 났고 아는 것들을 전부 동원해도 못 푸는 문제는 또 못 풀고.... 제가 개념은 한 번 내신 때 들렸으니 이젠 문제나 풀자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었어요...

그렇게 문법 개념 공부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해야할 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렇게 선배들의 조언들을 통해 문법의끝이 그렇게 정리가 잘 되어있던 이야기길 듣고, 책 후기도 찾아보고 9평 이후에 바로 구매를 하고 책을 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받고 제일 좋았던 부분은 책이 진짜 최근 기출 경향을 반영해서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중세국어 부분이 꼭 나오잖아요 요즘 기출에서, 근데 그런 개념이 진짜 정리가 잘 되어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기숙사에서 짐을 급하게 옮기면서 책을 어디다 뒀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요.... 개념 정리가 진짜 잘 되어 있는데 책 목차만 보셔도 분류가 잘 되어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 안에서의 개념도 진짜 좋았어요. 이걸 진짜 이 책으로 공부를 하셔야 체감이 들어요... 내가 진짜 좋은 책으로 공부를 하는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중간 중간 선생님 캐리커처가 나와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문구도 날려주시는데 그것도 공부의 틀을 잡는데 되게 도움이 됐고 선생님의 응원문구는 저에게 되게 힘이 되었어요!!TT 멘탈적으로도 많이 공부하면서 편안하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책 안에서 가지치기 형식의 분류표가 있어요! 이 분류표가 책 안에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공부를 하는 데에 있어 내가 무엇을 어디를 공부하는 건가를 아는지에 대한 분류와 이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문법의 끝은 이게 딱 잘 눈으로 보기에 잘 나와 있어서 좋았고,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분류표를 한 번 씩 봐주셨으면 합니다.

기출 문제도 정리 다 되어있어요 다른 기출문제집을 굳이 풀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혹시 평가원 기출 문제를 실전 모의고사처럼 푸실 분들은 문제가 스포가 된다 싶으면 교육청만 따로 푸셔도 되고, 아님 아예 기출을 나중에 풀자!



마음으로 개념만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그리고 책 안의 여백?이 많았어요! 단권화 책으로 적합한 책이라 이 점은 굉장히 좋았는데 책 안에 레이아웃? 이라고 해야되나요.. 빙산이 킨셈인 듯 했는데 그게 울퉁불퉁해서 조금 TTTT 굳이 울퉁불퉁해야 했다... 이걸 줄이면 좀 더 여백 확보가 될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충분히 여백 많은 책이니까... 이걸 약간 단점?

제가 수험생 막바지 9월 모의고사를 끝나고 이 책을 접했는데 좀 더 일찍 이 책으로 공부하지 않은 게 너무나 후회됐고 TTTT영영 이 책으로 공부하면서 국어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회복했어요! 중간중간 선생님 응원 문구도 좋고 책이 주는 신뢰감이 진짜 좋았어요...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는구나! 나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수험생활에서의 부정적인 느낌, 특히 난이도가 부쩍 높아진 국어에 대한 불확신을 이 책을 통해 많이 해결했어요. 문법에 대한 자신감이 국어 전반에 대한 자신감으로 점차 커지더라구요...

제가 수험생활 끝자락에 이 책을 만난거라 막 정독 5회독 이런 식으로는 못 봤지만 정독 1번에 수능 전 일주일동안 가볍게 1회독 했습니다.... 책이 술술 넘어가서 진도도 빨리 나간 편이었어요... 저 되게 끈기 없거든요... 근데도 다 끝냈어요...

결국 저는 어떻게 됐다면은....

수능시험지 받고 국어를 푸는데 문법 부분이 정말 빨리 풀렸어요. 이번 수능이 문법이 쉬웠던 편이긴 했지만 그 덕에 자신감 많이 갖고 국어를 끝까지 풀었고...

제 성적은.. 94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문학이랑 문학에서 한 개씩 나갔고...

물론 백점을 받은 거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에 비하면 엄청 훌륭한 점수를 받은 거는 아니지만... 오르비갓갓분들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TTTT 고3 1년 동안 한 번도 받지 못한 1등급을 받았습니니다. 물론 수능 문법이 쉽게 나온 덕도 있지만 내가 문법은 안 틀릴 것 같다는 자신감, 국어를 잘 볼 것 같다는 느낌이 저의 1등급을 만들었고 문법의 끝이 거기에 큰 공을 세웠다고 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제게 잘 맞았던 것 만큼 다른 수험생분들께 잘 맞을 거라는 보장은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문법에 대해 불안함이 많은 분들 문법의 끝으로 한 번 공부해보시는 것 추천 드립니다. 저도 수능을 치룬 선배들 3분의 추천으로 이 책을 만났고 이 책에 매우 만족했어요!

이 해 원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국어 학원을 다니지 않고 공부한 학생입니다. 문학과 비문학은 원래 감이 있어 얼추 성적이 나왔지만 문법만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2 때 치른 모의고사에서 다른 문제를 다 맞은 채 문법만을 모조리 틀린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수능에서 국어 100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는 ‘문법의 끝’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을 구태여 외우는 게 싫었고, 규칙마다 예외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학교 수업을 듣고 복습하고 인강을 들어봐도 음운부터 시작해 문장으로 이어지는 구성 체계는 늘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이제야 좀 감이 잡히네, 라는 생각이 들면 한 달 후 다시 새하얗고요. 내신을 공부할 때는 교과서와 가지고 있는 문제집의 예시들을 모두 달달 외우는 방식으로 겨우 성적을 얻었지만 모의고사에선 통하지 않았습니다. 고3이 되어 EBS 연계 교재의 문법 파트를 다 외워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쯤 오르비에서 ‘문법의 끝’이라는 교재의 추천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문법이 다급했던 저는 바로 구매했습니다.

처음 교재를 펼쳐 문법 개념 구조도와 개념 설명을 훑어보는 순간 눈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정리되지 않았던 개념들이 풀더로 분류되는 느낌. 각 챕터마다 해당 개념이 구조도의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명시되어 있는 것도 체계적인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교재를 공부하면서 전체적인 체계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2회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선생님의 캐리커처에 덧붙은 열공 Tip!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해한다고 믿고 넘어갔던 팁들이 제대로 이해되면서 나도 몰랐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저는 딱딱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문법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쓰는 언어의 규칙인 만큼 우리가 쓰기 편리한 대로 만들어지고, 변화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 문법을 암기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문법에는 단순 암기가 필요한 지점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선생님의 말장난 같은 암기법들도 도움이 되었습니다ㅋㅋ)

문법이 무조건 싫었던 제가 문법이라는 과목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준 책입니다. 현장에서 강의하는 강사가 쓰셨지만 현역 학생이 홀로 독학하기에도 너무 좋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아꼈고, 아끼고, 내년 후배들에게도 추천합니다.

변기범 |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18학번

저는 2018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 정시로 서강대학교에 입학한 변기범입니다. 처음 유현주 선생님을 알게된 건 오르비라는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였습니다. 당시, 수능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던 저는 6월 모의고사를 비롯한 수차례의 모의고사에서 비문학, 문학 특히, 문법 영역에서 취약점을 드러냈고 국어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르비라는 사이트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큰 관심과 애정을 주시며 성적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유현주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강의를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제 주변의 많은 수험생들의 생각과 같이 국어는 강의를 통해 성적을 올리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유현주 선생님의 강의를 신청하게 된 것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현주 선생님과 문법의 끝 교재의 큰 도움으로 2018년도 수능에서 국어 영역 만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다른 과목들에서의 실수를 만회하며 서강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수업을 진행하시고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신 유현주 선생님은 제가 2018학년도 수능 시험이라는 큰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유현주 선생님이 쓰신 문법의 끝이라는 책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문법 교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자세하고 쉽게 국어 문법을 설명하고 있어 가장 취약했던 문법 영역의 문제들을 모두 맞출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문법의 끝을 보고 계시는 혹은 볼 예정이신 모든 수험생분들이 유현주 선생님과 이 책의 도움을 받아 2019학년도 수능에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른 정답





문법의 끝 빠른 정답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11번] - 음운의 개념 11 ①	본문 29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11번] - 음운의 변동 11 ④	본문 62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11번] - 음절의 유형 11 ①	본문 29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11번] - 음운의 변동 11 ④	본문 63
[2014학년도 예비수능 모의평가 A형 11번] - 음운의 개념 11 ②	본문 30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번] - '겹받침'의 표준 발음 분석 12 ⑤	본문 63
[201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A형 11번] - 단모음 체계 11 ②	본문 31	[2017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2번] - 음운의 변동 12 ①	본문 64
[2018학년도 수능 14번] - 음운의 변동 14 ②	본문 58	[2017학년도 7월 학력평가 11번] - 음운의 변동 11 ①	본문 64
[2017학년도 수능 12번] - 음운의 변동 12 ⑤	본문 58	[2017학년도 4월 학력평가 11번] - 음운의 변동 11 ④	본문 65
[2016학년도 수능 A형 11번] - 음운의 변동 11 ③	본문 59	[2016학년도 7월 학력평가 11번] - 음운의 변동 11 ③	본문 66
[2015학년도 수능 A형 11번] - 음운의 변동 11 ③	본문 59	[201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A형 11번] - 음운의 변동 11 ①	본문 66
[2014학년도 수능 A형 11번] - 음운의 변동 11 ③	본문 60	[2015학년도 7월 학력평가 A형 11번] - 음운의 변동 11 ⑤	본문 67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번] - 음운의 변동 13 ①	본문 60	[2015학년도 4월 학력평가 A형 11번] - 음운의 변동 11 ④	본문 67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번] - 음운의 변동 13 ⑤	본문 61	[2015학년도 3월 학력평가 A형 11번] - 음운의 변동 11 ②	본문 68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11번] - 음운의 변동 11 ②	본문 61	[201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A형 11번] - 음운의 개념 11 ②	본문 68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11번] - 음운의 변동 11 ④	본문 62	[2014학년도 7월 학력평가 A형 12번] - 음운의 개념 12 ⑤	본문 69

해설





문법의 끝 해설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11번] - 음운의 개념 (본문 p.29)

11 음운의 변동 (개념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식물’이 [싱물]로 발음되는 현상은 ‘ㄱ’이 ‘ㅇ’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음화에 해당된다. ‘입는’이 [임는]이 되는 현상이나, ‘뜯는’이 [뜨는]으로 발음되는 현상 역시 비음화에 해당하는 데, 이들은 모두 음절 말 자음인 안울림 소리인 ‘파열음’과 이어지는 음절의 초성이 울림 소리인 ‘비음’과 충돌할 경우 생기는 현상이므로, 세 경우 모두 두 자음이 충돌할 때 앞 음절 말 자음이 비음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11번] - 음절의 유형 (본문 p.29)

11 음절의 개념 (개념 적용) 【정답 ①】

- (정답 해설)** ‘끼’의 경우 ‘ㄱ’은 하나의 자음이므로, 초성에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② <보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말의 중성은 모두 모음이다.
- ③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훈민정음의 중성부용초성(중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 표기법의 원칙에 따라 초성의 자음이다.
- ④ 초성이 없는 음절은 ‘아, 야, 와, 의’처럼 초성에 ‘ㅇ’이 온 경우로, 초성의 ‘ㅇ’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음에 해당된다.
- ⑤ ㄱ~ㄹ의 예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말에서는 자음만 발음할 수 없어 반드시 중성인 모음이 오게 된다.

[2014학년도 예비수능 모의평가 A형 11번] - 음운의 개념 (본문 p.30)

11 어휘·어법 (음운의 정의) 【정답 ②】

- (정답 해설)** 보기는 ‘음운’의 정의에 관한 글이다. (ㄱ)은 음소(분절음운)의 개념과 예이고, (ㄴ)은 운소(비분절음운)의 개념과 예이다. 이를 통해 음운으로 단어의 뜻이 구분됨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① (ㄱ)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지만 (ㄴ)은 문자로 표기하지 않고, 소리의 길이를 실현되어 나타난다.
- ③ (ㄱ)과 (ㄴ) 모두 음운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 ④ 자음은 초성과 중성에 사용되고, 모음은 중성에만 사용되므로 어떤 위치든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바르지 않다.
- ⑤ (ㄱ)과 (ㄴ)은 의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감정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201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A형 11번] - 단모음 체계 (본문 p.31)

11 어휘·어법 (단모음 체계) 【정답 ②】

- (정답 해설)** ‘ㅈ’는 전설 모음이면서, 평순, 저모음에 해당하고, ‘ㅊ’는 전설 모음이면서 평순, 중모음에 해당한다. 즉, 전설 모음이면서 평순으로 발음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혀의 높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를 발음할 때에는 ‘게’에 비해 혀의 높이를 조금 더 낮춰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해설)** ① ‘개’와 ‘게’는 모두 평순 모음이므로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릴 필요가 없다.
- ③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한다’는 내용은 <보기>에서 찾을 수 없다.
- ④ ‘ㅈ’는 개모음이므로 입을 더 크게 벌려야 한다.
- ⑤ ‘ㅈ’와 ‘ㅊ’는 모두 전설 모음이므로 혀의 최고점은 앞쪽에 위치해야 한다.